

이통사 실적 개선 위한 비장의 카드… ‘AI·B2B·모빌리티’

〈인공지능〉 〈기업 간 거래〉

SKT 감성 대화 기반 AI 선배
KT 클라우드 분야 DX 이끌어
LGU+ 중견·中企 영역 늘리고
모빌리티·ESG 경영 확대 전략



이통 3사 로고.

/각사

이동통신사들이 2분기 이후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AI), B2B(기업간거래), 메타버스 및 모빌리티 사업에 사활을 건다.

SK텔레콤은 6월부터 AI 에이전트인 ‘에이닷’에 대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스캐터랩과 손잡고 소셜 및 지식대화 능력을 갖춘 AI 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KT는 모바일 IPTV 사업 성장을 지속해 개시카우 역할을 강화하고, 디지털 B2B 사업과 관련해 하반기에 수주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ESG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구입에 나선다.

SKT 손인혁 에이닷 추진단 미래기획팀 담당은 “6월부터 에이닷에 대해 대

규모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과는 감성 대화 기반 AI 에이전트를 선보여 지식 및 감성을 갖춘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손 담당은 AI 등 분야에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MWC에서 글로벌 통신사와 AI 공동 구축을 위한 얼라이언스를 제안한 바 있다”며 “LLM(초거대 언어 모델)을 주도하는 빅테크와 제휴도 병행하고 있어, 글로벌 진출에 상대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SKT는 또 텔코에 통화 내용 브리핑 등 AI 전화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유저 친화적 사용자 경험(UX) 개편

과 개인화 기반 홈 화면 개편, 14세 이하 유저 진입 장벽도 낮춘다는 전략이다.

SKT는 초거대언어 모델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상반기 중 초거대 AI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연내에는 멀티 LLM 구조에 적합한 ‘통합 랭커’를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KT는 클라우드 분야에서 초거대 AI 시대를 앞둔 기업들의 DX를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KT클라우드에는 AI, 인프라, 미들웨어 솔루션, 연산훈련, 응용 AI 생태계를 풀스택으로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IMM크레딧앤솔루션으로부터 6000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KT는 모바일 IPTV 사업을 성장시키고 프리미엄 중심 고객 기반 확대와

함께 고객 세분화 타겟 마케팅을 강화하고, 부가서비스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KT김영진최고재무책임자(CFO)는 “AI 기반 DX 서비스 제공 역량과 IDC,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 기반 DX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내의 DX 수요를 이끌어왔다. 앞으로 DX 수주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업무의 자동화 효율화 등 구조적 비용 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네트워크 관제에 대한 자동화 지능화 솔루션을 확대하고, 단순 업무 로보틱처리자동화(RPA) 솔루션도 도입해 DX 역량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AI컨택터(AICC), 개통, 사후서비스(AS) 등 자동화를 확대해 비용 효율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모빌리티 사업과 스마트팩토리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임창혁 기업신사업그룹장(전무)은 “국내 대표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솔루션 기업인 LS일렉트릭과 협약을 통해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 및 중견기업까지 사업 영역을 늘릴 것”이라며 “각 공장 특성과 니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비용의 솔루션을 제공해 시장 내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토요자동차가 올 한해 출시되는 렉서스 등 전 차종에 LG유플러스의 날씨, 스마트홈, 뮤직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포테인먼트서비스 플랫폼인 ‘유플러스 드라이브’를 탑재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ESG 경영 일환으로 2분기부터 재생에너지 구입을 본격 추진한다. 또 태양광 설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또 2분기에 광고 플랫폼 등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통해 신사업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외에 알뜰폰 오프라인 컨설팅 매장인 ‘알뜰폰 플러스’도 전국에 7매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SK파워텍, 전기차 핵심부품 본격 양산

부산 신규 공장 시험가동 마쳐
SK㈜, 장비 도입 등 성장 견인

투자전문회사SK㈜는 SiC(실리콘카바이드·탄화규소) 전력반도체 설계·생산 자회사인 SK파워텍이 부산 신규 공장의 시험가동을 마치고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SK㈜는 지난해 SK파워텍 경영권을 인수한 후 추가 투자를 통해 생산 공정을 업그레이드하고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등 SK파워텍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기존 포항 공장을 확장 이전해 지난 3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문을 연 SK파워텍 신공장은 이온주입기(Implant) 등 설비를 대폭 증설하는 한편 공정 최적화 등을 통해 4분기까지 기존 대비 3배 수준인 연산 2만9천장(150m



SK파워텍 품질팀 구성원이 6인치 웨이퍼 제품 출하직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SK

m/6인치 웨이퍼 기준) 규모의 SiC 전력반도체 생산능력을 갖추게 예정이다. 총면적 약 1,750평 규모의 4층 건물로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 공장은 태양광과 전기차 영역 고

객사들의 주문물량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 이 중 절반 이상을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해외로 수출할 예정이다. SK파워텍은 올 4분기까지 공장 가동률을 10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SK파워텍 부산 신공장은 특히 기술 협력과 인재 유치, 수출 등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이 큰 강점으로 꼽힌다.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공유 등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PSCC), 한국전기연구원 등 협력기관과 부산항 등 수출 인프라와 인접해 있다.

SK파워텍은 ▲글로벌 최고 수준 제품 경쟁력 확보 ▲전기차 시장 본격 진출 ▲파운드리 공급 확대 ▲신규 공장 선제 증설 등 중장기 전략을 통해 2026년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성

장한다는 목표다.

SK㈜자회사인 SK실트론의 SiC 웨이퍼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시너지도 SK파워텍의 강력한 경쟁우위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력반도체는 전기차, 전자제품, 5G 통신망 등에서 전류 방향과 전력 변환을 제어하는 필수 반도체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는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가 지난해 308억달러(약 41조원)에서 2026년 384억달러(약 51조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차세대 전력반도체로 꼽히는 SiC 전력반도체는 기존 실리콘(Si) 전력반도체 대비 약 10배의 전압과 수 백도의 고열을 견디는 장점을 갖고 있어 기존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김양택SK㈜첨단소재투자센터장은 “SK파워텍 부산 신공장 증설을 통해 SiC 전력반도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현대위아

EV9·뉴 코나에 탑재될
‘냉각수 허브 모듈’ 생산

현대위아가 전기차용 열관리 시스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현대위아는 전기차 전용 열관리 시스템 중 하나인 ‘냉각수 허브 모듈’의 개발을 마치고 생산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생산은 현대위아 창원1공장에서 연 최대 21만대 규모로 이뤄진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가 냉각수 허브 모듈을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냉각수 허브 모듈은 기아의 ‘더기아 EV9’과 현대차의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등에 탑재된다.

현대위아가 개발한 냉각수 허브 모듈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와 구동장치 및 전장 부품의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부품이다. 이 모듈은 구동 부품과 배터리 냉각을 담당하는 별도의 장치를 기능적으로 통합해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양성운 기자 ysw@

노인 삶의 질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CJ올리브네트웍스 프로그램 확대

CJ올리브네트웍스가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뜻으로 글을 자유롭게 읽는 것처럼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최근 산업 전반이 비대면의 일환으로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등 디지털로 바뀌면서 시니어 연령층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IT서비스기업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에 공감하여 ESG 전략과제로 ‘디지털 접근성과 리터러시 향상’을 선정, 지난해부터 시니어 디

지탈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매일유업’과 ‘케어유’가 함께 협력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 임직원 봉사자 400명은 상반기 3곳, 하반기 5곳 등 8곳의 노인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총 40회차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혜 지역도 확대했다.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크게 ▲스마트폰 교육 ▲키오스크 교육 ▲키오스크 현장실습 등 3개 과정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빛나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한화큐셀, 탠덤 셀 파일럿 설립 구축

충북 진천공장에 1365억 투입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차세대 태양광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기반 탠덤 셀(탠덤 셀) 양산을 본격화한다.

한화큐셀은 충북 진천공장에 1365억 원을 투입해 탠덤 셀 및 모듈의 양산을 위한 파일럿 설비를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설비는 진천공장에 들어서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험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소규모 시험 생산 라인을 운영 중인 독일 탈하임 R&D 센터와 협력해 오는 2026년 하반기 탠덤 셀을 본격 양산하기 위해서다.

이번 투자로 경쟁 고효율 제품으로 꼽히는 탠덤과 헤테로접선 모듈보다



한화큐셀 진천공장 전경.

16% 이상 발전 효율이 뛰어난 탠덤 셀 기반 모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탠덤 셀 및 모듈 파일럿 설비를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고효율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공정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한국과 미국, 독일 등 3개국을 잇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효율을 갖는 탠덤 셀 양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U+

취준생 구직 사이트 이용 시
데이터 무료 ‘제로레이팅’

LG유플러스가 취업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통신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직 사이트 이용 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로레이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로레이팅이란 통신사업자가 특정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 접속 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운영 정책이다.

LG유플러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구직 사이트 접속 빈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를 대상으로 제로레이팅을 적용기로 했다. /채윤정 기자